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5.09.25.)

참석

위원 : 강문식 위원장, 박성주 위원, 박병현 위원, 조애숙 위원, 안인수 위원, 박소정 위원, 박경숙 위원, 김종은 위원, 천현진 위원

위원장

지금부터 2025년 9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콘텐츠센터 말씀 듣겠습니다.

콘텐츠센터장

여수섬특집 2부작 제작 마무리 작업 중, 여수반도(여수에 반할만도), 추석 특집 편성 예정이며 섬달천, 여도, 금오열도 다룰 예정. 한국의 둘레길(지열MBC 공동제작) 금오도 비령길 제작 마무리 중, 10월16일 공동편성으로 부산MBC '갈매길 사계' 이후 24일 금오도 비령길 편성 예정(4K UHD). 푸른 공의 연대(고흥 비전 제시 특집) 제작 중, 2025년 광양만권 가족콘서트 녹화 진행 18개팀 예선 참석, 9팀 본선 진행, 추석 방송 송출 위해 준비 중. 방송영상AI학습데이터구축 사업 선정하여 작업 중이며 학습용 원시데이터 업로드, 가공, 라벨링 작업 하여 올해 말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 AI공모 관련 MBC연합하여 잘 대처하여 대응하겠음. 10월 19일 77주기 합동추념식 구례지리산역사박물관 전남 3사 생중계 준비 중
지난 회기 반영 사항 중 문화유산 보존, 가치 알리기 관련 하여 문화유산 축전, 갯벌 관련 프로그램 제작, 섬박람회 관련하여 섬마을여행사, <어바웃우리동네>에서 섬 관련 사항 방송.

위원장

섬관련 특집 많이 준비했으나, MBC에서 많이 지원해서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바람. 고흥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고흥에 관한 좋은 콘텐츠 제작하여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함.

보도센터장

여수섬박람회 2026년 9월 5일부터 2달간, 섬박람회 관련하여 연속하여 보도중, 보물섬 기획 관련하여 일본섬 취재하여 리포트로 보도. 현재 스웨덴 섬 취재 중. 섬의 인적 물적자원 살펴 보고 개발할 수 있는 요소들 취재하여 리포트 제작 예정. 그리고 독일 현지에서 에너지 전환 선진국 사례 취재하여 리포트 제작 예정. 지방선거 앞둔 후보간 경쟁문제, 혼밥 손님 불친절 사례 관련 혼밥식당 모집 및 관광이미지 개선, 광암 물류창고 화재 문제 보도
10월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보도, 추석 기획으로 내년 지자체선거 후보자 기획보도(교육감 포함), 특집 2개 제작중 차질 없이 진행 예정.

방송사업센터장

9월 여수아카데미(진남문예회관, 고명환), 정채봉문학상 심사 진행 중, 200편 중 20편 선정 하여 최종후보작 심사중. 문화 행사 관련하여 11월 뮤지컬 킹키부츠, 12월 발레 호두까기 인형 개최 준비중. 여수에서 진행 중인 버스킹 공연인 낭만·청춘버스킹 11월 마무리예정.

위원장

다음으로 위원님들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주 위원

9월17일 MBC가 미디어신뢰도 순위 1위 한 것 축하드립니다. 시·군 인구소멸 예방책 중 청년창업 지원 코너가 있음. 전국에서 수없이 많이 있고 성공한 사례가 있으나, 대다수가 몇 년을 넘기지 못하고 폐업 및 신용불량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사회에서 제공해야 하나, 일회성 지원만 이뤄지고 있음. 이 부분 조명해서 보도 해주길 바람. 순천만습지센터로의 이전시 시민에 대한 홍보가 중요함. 이전의 시민 공론화 자리에서 사옥이전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대부분 MBC의 정확한 사정에 대하여 알지 못했음. 순천으로의 이전 과정 및 배경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콘텐츠나 유튜브 쇼츠 등을 제작해 홍보할 수 있기를 바람.

위원장

순천시로의 이전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이해시킬 수 있도록 세밀한 소통이 필요함

박병현 위원

여·순·광 통합 관련하여 지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었음. 시민들은 시 별로 선을 긋는게 아니라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있음. 지역 경기의 어려움을 모두 다 겪고 있는 공동체 구조임.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전은 서운할 수 있으니, 사옥 이전과 관련하여 강경한 입장을 가진 일부 인사들 때문에 지역감정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여수 시민들에게 많은 소통을 하고 세밀하게 챙길 수 있기를 바람. 언론의 중립성 및 객관성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람

조애숙 위원

시대에 맞게 나아가는 MBC의 모습에 기대를 했으나, 여수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서운한 감정이 있는 것도 사실. 이전 소식 이후 3개월간 정치권의 대처 및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여순광은 같은 전남동부권으로 크게 달라질 것이 없음을 주변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있음. 섬박람회 관련하여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점이 지속하여 들고 있음. 주변에서 섬박람회에 대하여 정보공유가 부족함. 방송사에서 이 부분 제대로 다뤄주길 기대함. 여수시 풍력발전 시도 관련하여 취재요청. 새마을금고 이사장 비위문제 관련하여 몇 년 전부터 지속되어온 가해행위 관련하여 후속 보도 요청

안인수 위원

사옥 이전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힘써주길 기대함. 여수 산단 위기 관련하여 구조조정 등 좋지 않은 내용의 보도가 넘쳐나고 있음. 걱정이 불안으로 바뀌는 상황임. 인재확보 유지가 위기극복에 중요하나, 어두운 전망이 지속되다 보니, 인재유출 및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위기 극복을 위한 업계의 노력과 석유화학의 자구노력과 이행과정에서 규제와 인허가가 많아서 자구책 마련을 위한 정부 및 사회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도가 필요.

섬박람회를 앞두고 불친절 문제 관련하여 여수 관광업 타격을 받음. 자구 노력, 친절캠페인을 통해 전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다뤄줄 수 있다면 좋겠음.

박소정 위원

여수MBC의 순천으로의 이전 이유와 방식, 기대효과가 방송되어야한다고 생각함(이전 당위성과 언론으로서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기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비전이 있어야 함). 콘텐츠사업에만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일 수 있음. 방송사 명칭도 세밀하게 고민하길 바람. 보도의 다양성과 풍성함은 좋으나, 심층취재가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니 기획 등 심층취재가 이뤄지길 바람. 보도내용과 영상이 안맞는 경우가 있으니 세밀하게 신경써주길 바람. 지방선거가 다가오니 네커티브논쟁 등 벌어지고 있음. 미리 준비하는 기획이 필요함(지역민이 바라는 후보, 어떠한 것이 해결책이 필요한지)

박경숙 위원

학생들이 말하는 지역소멸의 해법을 다뤄주셔서 감사함.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를 다뤄주길 바람.

김종은 위원

섬 취재 관련하여 일본 섬 취재한 내용 소개해준 부분 좋았음.
전력설비 지중화 관련된 내용도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 생각함. 여수산단 한 업체 전력설비 공사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비교해 볼 수 있었음.
지역 갑질, 위생문제, 불친절 문제 관련하여 여수를 검색하기가 두려워지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훼손돼 안타깝게 생각함.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홍보의 역할 기대.
방송사의 명칭에 지역 갈등을 막을 수 있는 세밀하게 대처하길 바란다.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을 기대함

천현진 위원

여순사건, 섬 관련 특집 등 지역밀착콘텐츠가 네트워크간 교차편성 등을 통해 다른 지역에도 알리고 접근성이 높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등을 통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 개발이 필요.
지역소멸 관련하여 고민하는 보도 좋았음. 지역의 문제를 다루는 보도의 후속취재가 필요함. 보도의 헤드라인 반복하여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확인 필요.
생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좋다고 생각하나, 소통과 홍보의 과정이 부족하다고 하면 문제를 해결 하는게 시급함. 전남동부권 권역을 아우르고 있으며 순천으로 이전한다 해서 여수를 버리고 순천의 뉴스만 다루고 순천만을 위한 콘텐츠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닌 이전에 대한 비전과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홍보가 필요. 대학,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주길 바람.